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中等敎育擴充案批判

實業敎育偏重은不可

一

明年度부터 實施되는 初等敎育十個年擴充計畫에 繼立저 中等敎育調査委員會가 任命되어 이미 數次의 會合을 開催하얏다 함은 旣報한바이다。그런데 이제 그 擴充案內容을 보건대 (一) 高等普通學校는 公私立을 莫論하고 不得已한 境遇를 除하고는 原則으로 設立을 中止하고 (二)私立學校를 設立코저 하는 地方서 寄附又는 義捐이 收集되어잇드래도 百萬圓에 達하지 안흔 때는 道에서 適當히 處分하고 (三)實業學校는 商農工水 各各 若干의 新設又는 乙種學校의 昇格으로 滿足하고 (四)女子敎育은 高普의 一道一校主義의 實現後 平壤、釜山、咸興等地에 實業學校를 增設하고 家庭學校를 一道一校식 設立하다 한다。要컨대 今後 十年間의 中等敎育은 男女를 勿論하고 實業學校의 增設 又는 擴充으로써 主要方針을 삼고 高等普通學校는 現狀維持로 나갈 方針이다。

二

朝鮮의 實業偏重敎育이 如何히 不當한가 하는것은 이미 累次 本欄에서 批評한바이어니와 今後 十年을 두고 實現할 中等敎育을 以上과 가티 實業敎育에만 偏重하고 그나마 普通學校卒業生의 增加할것을 豫想치도 안는것은 當局의 意圖가 那邊에 잇는가를 알고십다。當局의 發表에 依하면 今後 十個年을 計畫하야 普通學校의 一面一校主義를 實現하야 約七十萬의 兒童을 더 收容한다하얏다。그러면 現在의 倍의 數爻가 就學할뿐아니라 倍의 卒業生이 날것은 定한 理致다。그러라면 現在의 約倍數의 中等學校를 設立해야 할것은 自然的 論理다。即 現今 中等學校는 高普가 四十餘、實業學校가 七十餘 合百十餘個잇는데 今後設立할것은 若干 實業校의 增設又는 擴充으로 滿足하겟다 하니 우선 收容할 數爻로 보아도 學校의 不足을 느끼지 안는가。

三

況 高等普通學校의 設立은中止하고 實業學校만은 增設又는 擴充하겟다는 方針은 實로 現實을 無視함도 程度를 지낫다 朝鮮서 學年初가 되면 高等普通學校 志願者가 公私立을 勿論하고 定員의 四五倍 乃至二十倍가 되는것은 當局이 數字上으로 明確히 觀察하는바다。當局이 눈을 감고 이 現實에 盲目하라하드래도 學父兄 學生 學校當局者들의 悲痛的 場面을 보고는 人道的 同情의 感慨가 업슬수 업슬것이다。더욱 今後 十年을 期하야 初等敎育이 普及되면 이形勢는 一層 甚함을 加할것이니 이以上高普를 增設치안코 百萬圓을 集合해노아도 特別한 境遇가아니면 高普를 認可치안을 方針이라하니 當局의 意圖는 那邊에 在한가。

四

이 現實的 要求가 업드래도 當局은 時代의 推移를 보아 當然히 高普校를 增設하야 朝鮮人도 多數히 高等敎育을 바들 機會를 맨들것이다。日本內地는 只今 中等校가 五百餘 高等女學校가 七百餘이어서 人口五萬[illegible] 大千에 一校의 平均이면서도 增設을 要求하지안는가。人口五十萬에 一校식밧게 안되는 朝鮮이다 어디上 高普校를 設立지안켓다는것은 朝鮮의 現實을 無視함이 甚大하다 아니할 수업다。當局은 無用한 高等敎育을 바다가지고 失業하거나 不平하는것보다 배운사람은 職業을 가지게하고 조리하야 實業敎育을 中心삼는모양이나 이것은 根本的 誤謬밧게 안되나니 失業을 念慮하야 高等敎育을 授與치안는다면 옛날의 可使由之요 不可使知之의 專制政治時代로 도라감이 아니냐。現代는 民衆을 가르처 그들로하야금 조흔 政治를 運用케 하는것이 政治의理想이다。當局의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伊의叛軍援助說로 佛、斷乎決意를表明

歐洲의左右翼對立尖銳化로 遂國際紛爭惹起乎

【巴里三十一日發同盟】西班牙內亂의 動向은 맛슬 獨裁政權과 左翼人民戰線이 對立한 歐洲의 國際政局에 異常한 不安을 與하고잇는데 伊太利政府가 西班牙叛亂軍을 支持하고잇다고 傳한結果 佛國政府도 重大決意를 하게되것이 아닌가觀測되다 伊太利軍飛行機數臺는 西班牙領모록코의 叛亂軍根據地테찬에 赴하는 途中알제리아에 不時着陸하얏다고 傳하는바 佛國政府는 以上의 報道에 徵하면 伊太利政府가 叛亂軍을 援助하고잇는것은 旣定의 事實이라고 斷定하고잇다 더욱이 佛國國內의 輿論은 西班牙의 內亂에 干涉하야 國際紛爭을 惹起하는것을 念慮하고 依然 超然不介入政策을 取할것으로 解釋되는데 델보外相은 三十日夜 下院外交委員會席上에서 斷乎한 決意를 表明하야 다음과가티 確言하엿다

西班牙內亂에 對하야는 佛國政府는 不干涉政策을 堅持하고잇는데 萬若 他國政府가 叛亂軍을 支持할時는 佛國政府도 亦是 마드리드政府에 對하야 武器를 供給할것이다

이리하야 介入을 決意할時 佛國政府는 第一段의 措處로 叛亂軍總指揮프랑코將軍에 對하야 一九二一年의 佛西兩國政府間에 成立한 條約履行을 强要하고 特히 다음의 要求를 提示할것으로 보인다

一、西班牙領모록코에서 第三國에 領土上의 特殊便宜를 與치아니할
一、土民에게 武裝하는것을 停止할

델보佛外相

動亂中의西班牙에 共產黨領袖潛入?

【암스테르담三十日發同盟】西班牙의內亂은 이제는 左右兩黨의 國際的 對立抗爭에 轉向할形勢를 生하고잇는데 코민테른은 密使를마드리드政府에 派遣하야 左翼人民戰線援助에 進出하엿다고 傳한다 和蘭有力新聞 놀트、프란반드紙의 報道에 依하면 코민테른首領外 十六名으로된 蘇聯代表團은 水夫로 變裝하야 三十日암스텔담에 到着하얏다 一團은 다시蘇聯汽船을바꾸타고 援助의 西班牙로向할豫定이다

蘇聯重工業의 中心우랄地方의驚異的發展 — 帝政時代까지 歐亞露西亞境界地帶로서 荒廢한 曠野에 不過하던 우랄地方도 蘇聯共和國成立以來 第一、第二次五個年計劃에 依한 重要鑛山의 開發과 大工場의 建設에 依하야 이제는 世界屈指의 重工業地帶로 化하엿다 蘇聯의 文化的開發事業의 必要品만이아니라 蘇聯邦을 護守하는 國防 第一線의 精銳武器까지 그巨大한 鑛山發達와 施設을 자랑하는 大工場으로부터 晝夜의 分別이업시 生産되고잇다 寫眞은
(一) 우랄스벨드로스크地方의 代表的大工場우라自動車工場의外觀
(二) 在체랴비안스크의 스탈린트락타-工場內部

西班牙叛亂圍繞코 歐洲不安去益深刻

謠言이百出、各國은疑心暗鬼

利害對立日復日尖銳化

【巴里三十一日發同盟】西班牙內亂을 圍繞한 歐洲各國政府의利害對立은 日復日 尖銳化하야 歐洲政局의 不安은 全혀 濃化하게되엇다 英獨佛伊蘇 各國政府當局은 內亂勃發以來 數次에亘하야 嚴正中立을 標榜하고 絕對不介入을 宣言하고잇섯스나 各國政府는 互相他國行動에 關하야 疑心暗鬼를품고 謠言이 百出하고잇는 現狀이다 세빌리아市의 叛亂軍은 佛蘇兩國政府가 政府軍을 援助하고잇다고 자조放送하고잇는데 一方 카사브랑카의報道에依하면 사롯지에리야國으로부터 렛찬에 向하는途中 不時着陸한 伊太利飛行機는 爆彈投下用의 機關銃을 搭載하고잇섯다고한다 또倫敦消息에依하면 伊太利海軍의 精銳五十隻은 西班牙近海를 遊弋待機中이라고 傳하며 나치스黨新聞폴키셰·베오바하타紙는 三十一日紙上에서 確實한 側의 報道라고하고 「西班牙政府軍이 使用하고잇는 兵器는 數個月前부터 蘇聯政府가 佛國軍需會社에 注文한 器材라고」 述하고잇다 此等報道는 반듯이 正確하다고 볼수는 업스나 歐洲의 勢力均衡이 獨裁國群과 民主主義國家群의 對立에 依하야 바야흐로 崩壞되려는 現狀인것만큼 西班牙內亂의 推移는 歐洲政局에 如何한 影響을 及할는지 거의 逆睹키難하다

中國初代大總統에 林森氏就任內定

廣西對策으론八月中旬總攻擊敢行

盧山會議의 決定內容

【上海三十一日發同盟】蔣介石氏를 中心으로 繼續開催中인 盧山會議는 西南問題外에 今年十一月十二日을 期하야 發令할 國民大會에서 決定할 憲法問題及大總統人選에 關해서도 協議하엿는데 初代大總統에는 國府主席 林森氏가 就任하기로 內定한模樣이다

【上海三十一日發同盟】盧山會議에서 廣西對策을 協議한結果 中央은 八月十日을 期하야 敢然總攻擊을 敢行키로 決定하고 蔣介石氏는 一兩日中에 軍事會議終了를 기다려 數日中에 劉紀文、陳誠、曾養甫의 三名을 거느리고 廣東에 進出하야 廣東에 行營을 設置하고 親히 攻擊軍의 指揮에 當하기로되엿다 (寫眞은 林森氏)

政友進言案 首相에게提示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安藤氏는 三十一日午前十一時半 首相官邸로 廣田首相을訪問하고 政友會의 國策進言을 手交하고 五十分間에 亘하야 進言中의 四大項目內容을 詳細히 說明하엿다 即 安藤氏는 「閣下의 國策에 對하야 平和外交方針과 이것遂行의 熱意와 迫力은 只今도 變함이업는가」하고 質問하엿슴에對하야 首相은 「全然變함이업다 다만 그外交工作에 잇서서 具體的內容은 言明하기는 困難하나 어느程度까지는 말할機會가 잇스리라고생각한다」라고 答하고 다음 安藤氏는 行政機構改革에 關하야 [illegible] 하고 [illegible] 此에 對하야 廣田首相은 [illegible] 라는 [illegible] 答하고 다음 [illegible] 을 거듭한後 午後 零時二十分辭去하엿다 또 安藤氏는 여기앞서 [illegible] 그努力을 要望하엿다

新海軍協定에 日本도結局參加?

國際孤立回避코事實上條約遵守

英政府、事態를樂觀

【倫敦三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蘇聯政府와의사이에 新海軍協定을 締結한데 힘을어더 마치내 獨波兩國政府와의 交涉을 進行하야 八月에는 다시 丁抹政府와도 新交涉을 開始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獨逸政府는 新協定에依하야 蘇聯政府가 甲級巡洋艦七隻建造의 權限을 確保한것을 口實로 現行海軍協定의 改訂을 要求할것으로 보이는데 伯林의 情報에 依하면 蘇聯政府가 新協定에 正式調印한後 結局 日本政府도 [illegible] 하고 事實上 新條約의 [illegible] 을 遵守하고 [illegible] 잇다 [illegible] 三十一日의 同紙上에서 [illegible] 日本政府는 [illegible] 新條約을 無力한것으로 [illegible] 스나 新條約을 [illegible] 는것은 全혀 [illegible] 할수밧게업다 라고 論하엿다

遲羅國에서 小型軍艦註文

【東京電話同盟】新興遲羅國에서 日本海軍을 通하야 註文을依賴하여온 警備艦三隻은 石川島造船所에서 來十月起工式을 擧行하고 建造에 着手할터인데 目下同工場造船主任○○技師가設計를 進行하고잇다 同艦은 各百二十噸이라는小型이나 入港砲一門二連裝機關銃一基를 搭載한 스마-트한 小型軍艦으로 明年四月末까지는 竣工하고 性能試驗을한後 引渡할豫定이다

陸軍補充令 施行規則一部改正

【東京電話同盟】陸軍補充令改正에 伴하야 陸軍에서는 同令施行規則中 一部改正을 三十一日省令第十九號로서 公布하엿다

辭令

朝鮮全羅南道公立普通學校長 [illegible] 高等官七等으로 [illegible] 栗源

新嘉坡防備工事 今年內整備完了

【東京電話】最近 英國政府는 歐洲大陸의 平和工作을 進行시키는 同時에 華府倫敦海軍條約及太平洋防備制限協定의 失效對策으로 香港及 新嘉坡의 防備施設의 擴大와 常駐軍의 充實에 注力하고잇는것이 顯著히 判明되어 軍當局은 크게 重視하고잇다 即 日本의 倫敦會議脫退에依하야 一九三七年 以降의 無條約時代出現이 明白히되자 英國은 極東根據地의 防備擴大强化와 常駐軍의 中國艦隊를 漸次 新式艦艇으로 更替할 方針下에 新嘉坡防備工事는 顯著히 進捗하야 도크擴張以下 要塞의 擴充等의 大部分은 今年末까지에 整備를終了할터이며 또新嘉坡常駐兵力도 現在의 陸軍兵力 三萬人을 三倍强化하고 空軍兵力도 擴充하게되엿다 그리고 香港에는 近代式機械化部隊完成의 計畫을 樹立하고 空軍은 現在의 飛行場을 擴張하야 新飛行場設置에 奔走하고잇다

公定價格에依한 米買入申請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三十日 公定價格에 依한米買入申請은 如左하다 (單位石)

酒田	三九、〇	門司	一九二、〇
名古屋	四〇六、四	金澤	六〇、〇
神戶	三四〇、〇	釜山	一四三、八
大阪	八〇、〇	合計	一、三九九、二

昭和十年十一月一日以降 累計 七四二、五四五、六

寺內陸相歸東

【東京電話同盟】西下中인 寺內陸相은 三十一日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驛着 入東하얏는데 車中에서 梅津次官을 招致하고重大事項에 關하야 說明報告를聽取하고 協議를 遂한다음 다시 田中兵務課長으로부터 報告를 聽取한바잇섯다

嚴正中立의必要를 獨逸政府가力說

나치스는叛軍에同情的

【伯林三十一日發同盟】西班牙動亂은 全歐洲를普通한 左右兩翼의 抗爭에 發展하야 國際問題化할 情勢를 뵈하게되엇는데 獨逸政府側에서는 三十日夜 嚴正中立의 必要를 力說하야 如左히述하엿다

西班牙內亂에 對해서는 各政府가 못까지 嚴正中立態度를堅持하지 안호면 안되다 一部小國이 마드리드政府를 支持할意向을 示한것은 遺憾하야 마지안는다 各國政府가 各各 思想傾向이 가른側을 支持하야 對立的그룹으로 分化하게 된다면 國際情勢는 益益 惡化할것이다 民主主義 諸國은 일즉 獨逸反對의 共同戰線結成을 企圖하엿스나 獨逸政府는 아직 獨裁國間의 共同戰線을 企圖한일은 업다

그런데 一方나치스黨은 公然히 西班牙叛亂軍에 同情的態度를 示하고 各新聞도 叛亂軍의 勝利를 大大的으로 報道하야 마드리드市의 陷落은 時期問題라고 述하야 叛亂軍援護의 筆陣을 펴고잇다

叛亂軍優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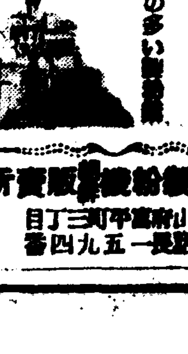
人民戰線派人物續續避難

葡萄牙方面의情報

【리스본三十日發同盟】西班牙國境方面으로부터 葡萄牙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西班牙國會議員數名、市會議員 人民戰線派西班牙人約三百名이 三十日 國境을지나 葡萄牙領에 避難하여왓다고 傳하며 이外에 人民戰線派의幹部가 續續葡萄牙領에 逃出한다고 傳하는데 右는 政府軍이 叛亂軍에 壓倒되야 崩壞를 告하고잇는 證左라고보인다 避難民은 首都의 南方침바-、아망리아方面에 逃避하고잇는데 쳬바-에서는 二十九日 叛亂軍이 쿠허리를 行하야 共產主義者二名은 軍法會議에붓친後 射殺되엿다한다

本報號外發行

本報는 卅一日午後九時에 發表된 東京二、二六事件의 靑年將校判決에 關하야 再版號外를 發行하야 市內讀者에게 分布하엿다


農林省御指定 中島式自動製粉機
三府四十二ケ縣 指定機補助金付
農林省の御指定になる中島式による製粉機の
小資本にて利益の多い製粉業
中島鐵工所 販賣所

レコード 蓄音器 樂器
カタログ進呈
卸問屋 菊谷商店
名古屋市西區伏見町三

カナミツデイゼル横型
▲小型デイゼル 重油機關出現 電氣使用費의半額 一日、八馬力에約八十錢
精米、製粉、石油式發動機、精麥機揚水ポンプ在庫豊富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六五六 振替釜三四四七
各地特約販賣店募集

胃腸病仙藥 神秘丹 大邱達城公園入口 本舖 景春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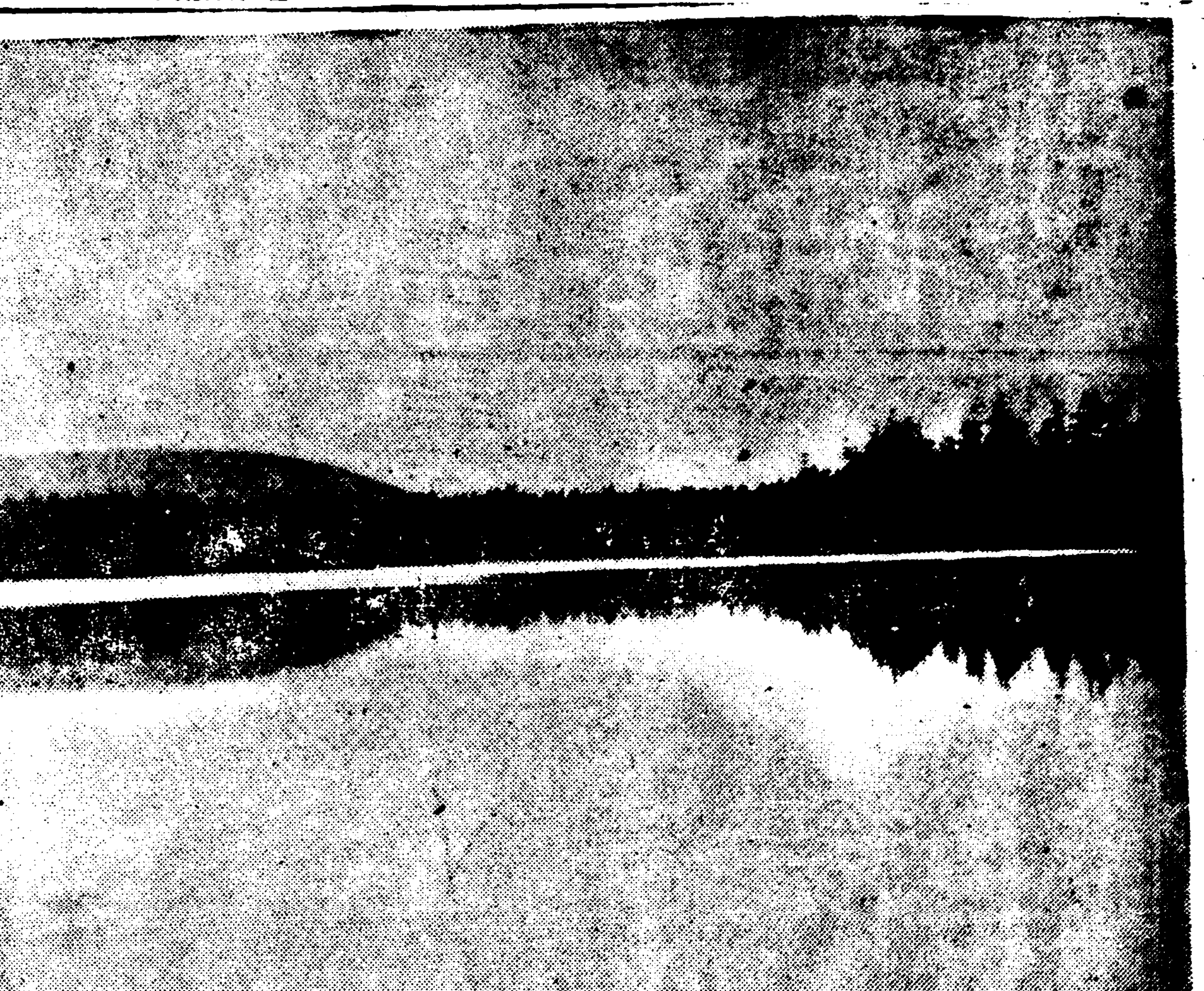
◇當る卅日封切(五日間)◇ 次週封切の名篇◇
1、夜明ケ島 2、曉の爆音 3、キートン野球大當り
今週の料金(階上階下均一) 大人三十錢 學生小人二十錢
乙女橋 秘密
中央館 永樂町

明光線

工産株式會社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 專務取締役 李圭元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株式會社
總販賣部 京城鍾路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

고추가루 金千壽 製粉部



海拔九千五百尺 三百年來로死火山

正確한測深이업는無底火口湖

—中—

地理的으로본白頭山

백 두산은 함경북도무산(咸鏡北道茂山)서북단에 위치를정하고 대륙과반도를 빗그려맨 주축(主軸)이되여잇는 약사백년전에활동이잇슨후 휴식을하고잇는사화산(死火山)으로 산록에는 장막한처녀림으로 덥히여 산꼭대기만 청초한 흰자태를 보이고잇는산이다。

전산을둘러싼 화어시밀은 현무암(玄武岩)의바다는 조선안으로는 동남방으로버려저 북포태(北胞胎) 남포태(南胞胎)로정령(虛項嶺)황봉(黃峰)쌍두봉(雙頭峰)을 지나 남원령(南圓嶺)에 이르러 그지간(直幹)은 실로사백여리를 뻐처고 마주편으로는 길림(吉林) 통화(通化)방면으로 연장약사오백리를뻐처 직간만 남부친여리를덥고잇는큰산이다。

최상봉은"돌"형(形)으로되여 조곰도 치식(浸蝕)을밧지아니한 분출(噴出)당시의 형상그대로 가지고잇서 조곰풍화작이가생겻다는 것이 기피이십미돌도못되는 작이돌로 비가내리기전에는 말라부러잇는그대로 빼만남아잇는 봉오리다 남편으로는 압록강이 물빠리를 시작하엿고 동으로는 두만강이 또그러케되여잇다。

산 봉오리의대부분은 경석질(輕石質)의 사력층(砂礫層)으로 덥혀 여기초원대(草原帶)가 먹어드려서 고산식물보고가 벌려젓스니 멀리서볼때는 흰눈이덥힌듯이보인다 여 백두산이란이름도 여기서유래된것이다。

이와가티 뭇언는대고원(高原)우에 옥좌이솟는봉오리전경은 한목으로 둘레까저서 일칭절벽이 척이나 꽈가지절벽아래로 주위사십리나되는 큰화구호(火口湖)가 생겻스나 이것이 우리가날르는 천지(天池)요 중국사람들이 불러서 룡왕담(龍王潭)이라고 일컷는것이다。

이천지를 둘러싼 절벽꼭대기봉오리들은 해발이천칠백사십사미돌(구천오백오십이척)되는 병사봉(兵使峰)을 맹주로하야 어마어마한 봉오리들로된 화구벽(火口壁)이 둘러차고잇다 천고의비밀을 품은대로잇는 천지의물은 맑고도 검푸른물이 무시무시하게도 고여잇서 화구벽의 붉고 푸른 그림자가 물로비치여 오색이 령롱한 품이 기절창절한경관을 보이고잇다

수온(水溫)은 섭씨(攝氏)십도내외로서 어류(魚類)등은 고사하고 미생물(微生物)조차 부터 살지못한다고한다

호 수의기피는 일천구백이십구년에 "빨프"씨 일행이 측심(測深)을 발표하엿스나 이것은 일부분에지나지 못하는것으로 제일깁흔곳에 가장 기픈곳은 얼마나될런지 전고의 비밀그대로 남아잇는것이다。

못의형상은 심장형(心臟形)으로 생겨 북편끄트로 한구통이가터저 이물이밧끗으로 떠러지게되엿스니 여기서한키로쯤 북쪽으로흘러서 노피삼십미돌되는 큰 폭포가 떠러지고잇스니 이것이 만주전폭을 축여주는 생명수가된 송화강(松花江)의 원류인것이다。이가티 다만한곳으로 터진 이못을 일러서 달문(闥門)이라고 부르는것이다。

그리고 화구벽의 특징은 전부가 거이파채가 야단스럽은 재(灰材)로쏘는 흑요석(黑曜石)돌로 한층더장관을 보이고잇다 백두산의 주위에는 옛날화산지대의 **유**적으로 처처에 온천을 발견할수잇슬것이나 천지부근의 유일한 인조물인 종덕사(宗德寺)노흔곳에 잇는 유화수소(硫化水素)를 함유한온천이 잇서서 입욕도 무방하다하고잇는 삼지연(三池淵)부근에도 온천이 다。이밧게백두산에는 가는곳마다 풍어나오고잇는바 이삼지연은 대소세개못이 북편밀림지대를 떼울으려 우러저잇서 그중에도 제일큰 못은 주위가두키로나되고 것바닥은 부석(浮石)부서러진모래 물기피는 기픈곳이 삼미돌이나될 다 그리고 이못들은 지질학자들의말로 화산의분출(噴出)당시에 큰강을 동강동강 끈케되여 물이고이게된것으로 추측한다。

이와가티 이산의일면은 거의전 현무암(玄武岩)을 바다으로하고 부석층(浮石層)이 깔려지표(地表)라는것은 얼마되지안는다。

이산록의 한가지 특징으로는 산꼭대기는 사실 바람이심하고 보니 가벼운 부석부스러기가바람에날리어 바람을면한곳에다가 대사막의 사구(砂丘)처럼되여잇서 이상하게도 주름이잡힌 사면(斜面)을 처처에서 발견할수잇다。(乙記者)

(사진은 삼지연)

二·二六事件當時 背後關係綻露

山口元大尉는無期禁錮刑

將校六名軍法會議서判決

【東京電話同盟】 이、이륙사건의 배후관게로서 산구일태랑(山口一太郎)대위이하 여섯명은 그간 동경륙군군법회의에서 심리중이든바 칠월이십구일 판결을언도하야 삼십일일 륙군성으로부터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판결언도와동시에 여섯명은 모다 위(位)와 관직을 일케되엿다

【陸軍省七月三十一日午後九時發表】 이、이륙(二、二六)사건의 직접참가자이외의 사람중 륙군보병대위(步兵大尉)산구일태랑(山口一太郎)외 오명에대하야는 칠월이십구일에 동경륙군군법회의(東京陸軍軍法會議)의 판결언도가잇섯다 판결의 [illegible]는 다음과갓다

一、罪名及處刑

一、叛亂者를利케함

所屬 步兵第一聯隊 陸軍步兵大尉 山口一太郎

陸軍刑法第二十條第二十九條에 依한無期禁錮

所屬 步兵第三聯隊 陸軍步兵中尉柳下良二

右는陸軍刑法第三十條 第二十七條第一號에 依하야禁錮四年

二、司令官軍隊를引率하고無故히 配置地를떠낫슴

所屬步兵第三聯隊 (事件當時) 陸軍步兵中尉 新井 勳

右는陸軍刑法第四十二條第一號에 依하야禁錮六年

叛亂豫備

所屬步兵第六聯隊 陸軍一等主計 鈴木 五郎

所屬豐橋陸軍敎導學校 陸軍步兵中尉 井上 辰雄

所屬 步兵第十八聯隊 (事件當時) 陸軍步兵中尉 鹽田 淑夫

右는 陸軍刑法第三十二條第二十五條에依하야 鈴木五郎禁錮六年 井上辰雄 鹽田淑夫各禁錮四年

(以上號外再錄)

襲擊地附近地圖 二百枚製作提供

西田稅와兵營에서頻頻會合

週番司令室을利用

一、산구일태랑은 일즉부터국가의 전도를 참으로 념려하야 단연주히 이를시정하야 국체의 참양자를 나타나게하야 륙하국민생활의 안정 군비충실을 도모하지안하면 안되리다고생각하고 이래 반란사건의 피고인촌중효차(村中孝次)긔부천일(磯部淺一) 향전청정(香田淸貞)안등휘삼(安藤輝三) 률원안수(栗原安秀) 섭천선조(澁川善助)등과 서로알게되야 그들피고인과 가튼사상신념을가진것스나 직접행동으로써 륙권개섭을떠려너머리고저 그로저올할하고저하는 계획을 하고잇슴을 알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합법적으로 국면을 타개하기로 뜻하고 흥은자력으로서 정회소(集會所)를창고 흥은이곳저곳에서 공중 서전세(西田稅)및 청년장교등과 회합하고 또 일반의정세등을 전하야 청년장교의 즉전행동을 제어하며 유도키에 힘써 그들의 일어나는 긔운을 탐지하고 그정세를리용하야 피고인의 소위『일격리는합법수단』에의하야 국가혁신을 일우고저함을 남모르게 하엿든데 그리하야 그러는중 청년장교를 사이에 즉전행동을 하려는 긔운이 점점익어가짐을보고는 피고인은 종래의 그의견해에 떨하 이런사태를 어떠케 청산처리할가에 관하야 생각하고잇든중 소화십일년 이월십일전후 률원안수(栗原安秀)로부터 그달하순 주번장교(週番將校)로서 복무하여달라는 청을 밧고 또즉접행동에 참가하라는 권유가 잇슴으로보아 그긔운이 촉박하여짐을 깨다랏는데 그달 십팔、구일께 쯤하야 그의집에서 촌중효차(村中孝次) 긔부천일(磯部淺一)등의 방문을바더 그들이 동지의 청년장교와피하고 보병제일련대 긔타병영을 즙동식혀 원로중신등을 습격하야 동경(東京)지구를 점거하야소위 소화유신(昭和維新)을단행하기위하야 멀지안허 궐긔하기로 되엿슴으로써 이상의 병력출동은을 묵과하는 동시에 외부에 잇스면서 상부에 대하야 공작하는 일을 원조하여 달라는 뜻을 빗최이자 감히 이에 반대하지 안코 도로혀 그전 경우에는 상부공작에 대하야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라는 뜻을 알리에 표시하엿든바 이회전에 의하야 궐긔의 긔운이 드되여 절박되엿다고 생각하고등 일 어신이월이십오일 서전세(西田稅)에 주번사령을 맛은뒤에 따로 ... 약이배장을 작성준비하고 동일 이십사일밤에 촌중효차(村中孝次)긔부천일(磯部淺一) 전향청정 ... 현상혁신의 근본취지에 잇서서 그전부터 피고청년장교들과 대단 친밀한우에 이와가튼 행위엿다

週番司令職을奇貨로 銃彈持出을默認

山口元大尉關係罪狀

동일 이십오일 저녁때에 전긔 률원안수(栗原安秀)로부터이 날밤에는 아모일도 업을터이니 출근치 자라는 말을듯고 드듸여 동야결행될것을 규지하고 촌중효삼(村中孝三) 긔부천일(磯部淺一)외아홉명의 민간동지가 결행하기위하야 발동에 병영(兵營)에서 면회를 구한데 대하야 이것을 허가하고 그날밤 전긔를 원등이 탄약을 반출할것을 미리알면서도 이것을 방임해 두엇스며 이십륙일 오전네시에는 전번 주번부관위병사령(週番副官衛兵司令)으로부터 긔관총대가 비상소집을 한다는보고를 밧고 여기에도 불구하고 여긔에대한 하등의 처치도하지안코 오전네시반쯤되여 률원안수 단파성충(丹波誠忠)외 장교하사관병약사백수십명이 병긔탄약을 가지고 동지부대(同志部隊)가 습격하는 시간을마처 동경시국정구영정(麴町區永田町)에잇는 내각총리대신관저등을 습격하고 흥은 점거(占據)할라고 출동하고 잇슴을 묵인하엿스며 다음에는 전네시반지나 부대는 이미떠낫다는보고를밧고야 비로서 처음으로 소요의 처치를 취하야 일문주번사령이라는 직권을 겨울리한 긔부대가 동영(屯營)을 떠나는것을 그들의 활동을 쉽게하엿스며 그들을 가리는동을 명령밧고 뛰니어그 부관(副官)이 되라는 명령을전하고 이를 조호긔회로삼아 직무를 리용하야 그들의 목적을 대신긔타에 대하야 이사건의처치로 시민(市民)을 상하게하지 안흘것 궐긔부대가 의군(義軍)일가 적군(賊軍)인가를 속히결정하야 소위 소화유신(昭和維新)에 매진할 강력내각을 조직하야 현시대에 선처할것을 간청하고 또 률원안수등과 군사참의관 장을 전달함 률원안수등과 군사참의관의 맛나볼 자리에참석하야 그회견의 원활한 유도를 알선하고 또탕자의 의사소통을 하야서 그들의 계획달성에 힘쓰고 흥은 이십팔일 오전 령시쯤에 륙군대신 관저에서 그날 다섯시쯤에 그부대를 어데던지 집결시키고저 명령을 하달할예정임을 드러알고 이래서는 그부대의 목적 달성을 좌절 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뭉툰하야려대장을 재촉하야 곳 계엄사령부에 이르러 그날오전세시지말고 어버이와가튼 마음으로 처 차차 처치를 하라는뜻을간청하고 또보병제삼련대장의 태도는 그들에게 불리하다고하야 그의휘로를 진언하며 흑은륙군대신관저에잇는 촌중효차 긔부천일 판과의 맛나본 자리에참석하야 향전청정 률원안수등과 군사참의 그회견의 원활한 유도를 알선 ...

에관한 순역(順逆)의 리치에는 밝한 신념을가지고 잇지못한까닭에 드듸여 비합법수단을 쓸때라도 일어날것이라고 진언하야 피고의 결의가 공고하야 도저히억제하기 어려운것을 아라채고남바 다시서전세(西田稅)를 주번사령실에 초치회견하고 소위상부공작(上部工作)으로서 그들의행동의 목적을 달성식힐것을 결의하 ...

올림픽聖火아래 壯嚴한開會式

待望의八月一日은왓다

【伯林三十一日發電】 第十一回올림픽大會는 이윽고 今八月一日 새로 新裝한 伯林『라이히스스포르트펠트』에서 열린다 이날午前八時(京城時間午後四時)에歷史的인『에벨트』를알리는 意味로서 親衛騎兵隊는『하켄ー크로이츠』旗와五輪旗 휘날리는 『운터ー덴린덴』大道路를 피리와 북소래에맛추어 勇敢한行進을한다 同十時前에『라트ー룬』伯을始하야 國際올림픽各國委員等은 一齊히宿舍를나와 二隊로나누어서 舊王城附近의도ー므・헷드・뷔잇히(寺院)에 行하는式祭에 參列하얏다가 一同은다시『운터ー덴린덴』無名戰士의碑에參拜한다 그리고一萬五千의히트러ー靑年隊男女가出演하는餘興의『마스게임』이잇다 이때에『올림피아』를出發하야 十一日째『빨칸』中歐의 七個國을 通過하야 傳達한聖火가零時五十分(京城時間 午後八時五十分)에 最後聖火走者로부터 이곳까지到着하야 嚴肅한가운데 王城앞에잇는넓다란大鼎으로 옴겨저서 불붓기始作한다 午後一時貴賓一同은『윌헬름』街에잇는 總統官邸에 『히틀러ー』總統의 招待를 밧은 다음 午後三時『뿌란덴뿌르그』大門을 西쪽으로 나가서 올림픽氣分이濃厚한『샤르롯텐뿌르그』大通路를 自動車로 通過하야 大競技場으로 발길을 옴긴다 이行列最後에는『히틀러ー』總統이群衆의 歡呼에應答하면서 壯嚴한式場으로行한다 午後一時(京城時間午後九時)에 五十三個國의六千餘名의 役員과選手는 各國固有의特色을發露하는 運動服을입고『스타디옴』과 遊接하야잇는『마이훌엘』(祭壇廣場)正面의 鐘塔을向해서 整列하야 다만開會를 기다리고잇다『히틀러ー』總統은마라손門으로부터 大『스타디옴』으로드러가면 아울러 歷史的習慣을보고저密集한 十萬의觀衆의 歡呼를바드면서 南側스탄드貴賓席에着席하면 이때에場內에設備된『오ー케스트라』는『와그넬』의忠誠行進曲을演奏하다가 『히틀러ー』總統의着席과함께 이것이 獨逸『란드・유ー버ー・아르레스』와『홀스트・웻셀』노래의曲調로 一變한다 音樂이끗난 午後四時(二日京城時間午前零時)에는 七十米突이나되는 塔上에달어맨 큰鐘은式의開始를 알니고저 殷殷하게 울려지면 『스타디옴』周圍에는 參加國旗는고요히揭揚된다 이刹那에希臘을先頭로 各國役員選手가 마라손門의階段을 내려와서 武步堂堂히 競技場으로 入場한다 其後에 世界各國의『메쎄ー지』를 마른 三萬의鳩가一齊히 靑空으로 날어간다 『릿하알트・쉬트라우스』氏自身이指揮하는 그의作品 『올림픽聖火』의 奏樂이始作될때 『르스트가르텐』으로부터 다시聖火를 運搬한聖火走者가 東門에서 나타나 聖火를 마라손門우에잇는 鼎속에옴긴다 一八九六年大會의 마라손優勝者希臘의 『스피리돈・루이즈』가『아르데느市長』『코지아스』氏와함께 選手團으로부터나와서 올림픽勝利의신불橄欖의枝를『히틀러ー』總統에게 交叉한다 뒤이어 獨逸重量擧(力技)選手『이스마일』選手가 各國選手團을 代表하야 宣誓하고『헨델』의『할넬누야』의노래를부르며 選手團一同이退場하면 『히틀러ー』總統도 退場하니 때는午後六時(二日京城時間午前二時)에式은 終了된다

一九四〇年올림픽大會 東京開催遂決定

夏季올림픽大會만을分離擧行

【伯林三十一發同盟】 一九四〇年 第十二回世界올림픽大會開催地는 各國올림픽委員記名投票의結果 三十六票(日本東京)對 二十七票(芬蘭헬싱키)로 東京에서 夏期올림픽大會만을 開催하기로決定되엿다

改定電車賃金

今日부터實施

경성전긔회사에서는 지난 칠월 이십삼일 교외선(郊外線)을중심으로한 전차료금개정을 발표하는동시에 그십사일부터 팔월일일로부터실시하기로 결정하엿다함은 그때상세히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날도드듸여 오늘로다라와 오늘부터 개정료금에의하는것은 물론이니 일반시민은 이점에특히 류의할것은 물론 더욱이번부터새로생긴 도심지대(都心地帶)를 충분히 알어두지안흐면 한정류장만더 타고가도 오전이팔전되는것을득히 알어두어야할것이다

園公襲擊코저 두러七臺準備

柳下外二名의罪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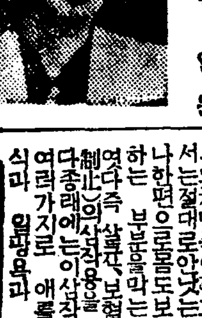
... 하야 사령관에서 사령관에 대하야 반란부대를 대표하야 ... 다하야서 그처지의 부당함을 ... 하고 철거에관한 명령의 무리 연긔를 요청하고 다욱이 해 ... 사(靈社)에 이르러그곳에 잇는 군사참의관에 대하야 그취지로 ... 가정을하는등으로 촌중효차등반란자에게 군사상의 리익을주는 행위를하엿다

二、류하량이는 종래로 국가혁신운동에 관심을 가지지안햇섯는데 이월이십일중에 보병제삼련대 긔관총주번사관(機關銃週番士官)으로 복무중 그달이십륙일 오전령시쯤에 주번사관 안등휘삼으로부터 률원부대에 대하야 긔관총을 배치할것을 시하야 긔관총을 ... 긔관총을 풀코잇던 소위、소화유신을 위하야 비상한 방법으로 병력을 사용하야 반란행위를 하는 필연한 리치라고하야 이리하야서 이 하달된것을알고 이리하야서는 상관의 명령에 의하야 ... 나아가지 여러번 상사(上司)에 대하야 사태의 원만수습의 의견을 구진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정세가 긔대에 틀리는것을 인정하고 분만을금할수업서서 초려 번민을 거듭하면바 이신념에도 전그들 부대는 그위치를 철거하야원소속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하달된것을알고 ... 는상격의 폭상사가 일어날것은 펄연한 리치라고하야 최후로자 긔행동에 의하야 상관의 반성을재촉할수밧게 업다하야 동일 오후두시경에 마음대로 경계를 철거하야 부하중대를 인솔하야 청산묘지(靑山墓地)에 이르러 다음에는 명치신궁외원(明治神宮外苑)에서 일단 쉬다음 정국신사(靖國神社)에 이르러 참배하고 그곳에 대긔하고 잇다가 오후아홉시경에 상관의 말에따라 그전경비위치에 돌아간것이다

三、신정훈(新井勳)은 그전부터 촌중효차(村中孝次)긔부천일(磯部淺一)향전청정(香田淸貞)안등휘삼(安藤輝三)률전안수(栗原安秀)등과 서로알게되여 국가혁신사상을 품고 그후 북경(北京)주둔보병대에 근무하게되자 직접행동으로써 국체옹호를 하는사상을 방긔하게되엿다 ... 이십륙일 이십륙일에 촌중(村中) 소화유신 ... 긔부(磯部)등으로부터 소화유신단행을 위하야 궐긔를 종용하엿스나 견해가달라서 동의키 어렵다고 이를거절하엿섯스나 동월 이십륙일 이번반란 사건발생에 대하야 그전부터 그들장교의지도 신념과그근저에 잇서상통한바잇든 피고인은 그후하달된명령이 대하야 ... 아갈신념은 업섯든바 이월이십일에 전과대마(對馬)가 차저와서 동경동지는 드듸여 이월하순중은 살원상(殺害한)을써서 궐긔키로 되엿대하야 풍교(豐橋)에잇는 동지도 역시이와호응하야 정강현흥진경(靜岡縣興津町)서원사공망(西園寺公望)의공작 습격코저 결의하엿스므로써 자금조달의리를밧고 곳 긔번전을 ... 일(磯部淺一)로 부터의 의뢰장을바드며 곳동지로서 이를동하야 이십삼일 조달하야 이월 이십삼일 직접습격행동에 참가 하지안흘뜻을 부언하야 이를그에게 교부하엿다

四、령목오랑은 긔부(磯部)대마(對馬)량명의 강회지도를밧고라그전경비위치에 돌아간것이다 ... 오후아홉시경에 ... 하고 그곳에 대긔하고 잇다가 ... 소위 소화유신의 사상을 품고잇섯스나 아직스스로 결행에나아갈신념은 업섯든바 ...

◎어떠케하면 좀더잘사나?



우리가 이세상에 생겨나서인생고해(苦海)라고 고생만하고산다 쌍가마(雙轎子)안에도 서름이잇다고 행복스러운중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불행이잇다 돈이업서 하고십흔일못하며 돈은 만어도 병이잇든지 병은업서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 만호면서도 번거러가면서 병을앓는다든지 일일히들어서 말할수 업스나 제일고통스러운것은 몸에병이잇는것이다 신외무물이라 몸에 병이잇고는 영웅열사도못견데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돈이만허도쓸대업고 지위(地位)가 놉다해도 다ー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미테비점만들어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더구나몸이든지 대소를론하고 다죽는병이라한다 그런대우리는 그런줄은 모르고의학과의생(醫學과衛生)의지식이 업기때문에 항상 병을알고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니우리가 좀 더 잘살고행복스러운생활을 할나면제일병에 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걸녀도 그병이 점점중하여저서 죽게까지 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 신효한 약을구하여서써야하겟다 그러면 어느약이제일조흐냐 삼척동자라도 다ー아는 서울신성당약이 무슨병에든지 제일 조타한다 이것은 입담으로 사람이면 다ー말하거니와 더욱 갓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잘증명한다 날마다 나다시피하는광고를 보드라도 이것이확실히증명하는 것이다 호미로막을것을 등한이하면 가래로도못막게되니 이글을 보시면병에만은신성당약을 곳쓰시오 서울신성당으로부터! 신성당 외에 무슨약이든지업는것이 업사오니 다소를불론하고 제일먼저 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뎡 제일본 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시면 신속친절히 보내드림니다 진척구좌는 경성一九五〇번입니다 주문하시는대로 방금곳보내드림니다

◎돈? 병? 약?

병을모르는것도아니오 돈이업는것도아니다조흔약을구하여야한다 신용잇고고명한 신성당의 약이 영하다고이루말수업스니조흔약을못어더고생하는분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문의하시오!

신성당의대명약

숙체병중엔과 겡오ー 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냉병대하월경 구로벨 완고용 구원 만성용 오원 급성용 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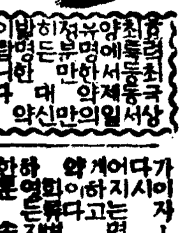
매독엔 푸로다ー 완고용 칠원 중증용 오원 경증용 삼원

뇌병부족엔 나오삐ー 삼기용 이십원 이기용 십원 초기용 오원

보음보양에 가이자ー 중증용 십원 경증용 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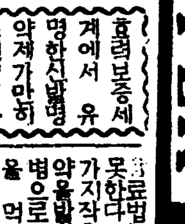
기침、천식、담에 에치삐ー 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치질약 엥구루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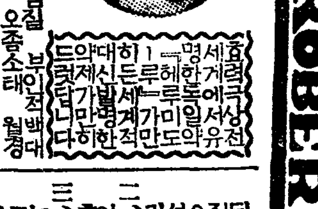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카이자ー KAIZER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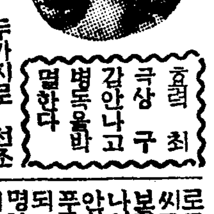
효력최상 세계에서유명한독일서상약제동국만한양신만의일



폐병 부족증 늑막염에는 나오뻬ー NAOPER 가제일



림질 대하증 냉병에는 구로벨 KUROBER 이제일



매독엔 푸로다 PROTER 가제일

효력최상 구안나고 병독을박멸한다

賣元 京城西大門町二丁目 神聖堂藥品株式會社 (振替京城一九五〇番)

開城驛新築

【開城】현재 개성역(開城驛)은 지금으로부터 약이십년전의 건물로 당시엔 전선제일가는 역이엇스나 지금은 타도시에비해 가장 뒤떠러지는 건물로써 사용되이 협착하고 대합실도좁아 시 협착하여 구룡다리와는너무 무용여지엇는 판거로 일반승객의 불편이 막대하든바 이번에 약일만이천원의 공비를드려 증축하게 되엇다는데 이때는 구룡다리와 근접하여서 구내역이 대합실로 배나 늘게되며 도한 통행소하는역의 과 운수성이 새로 생긴다 한다

배보다가 배꼽이더큰 新設各町會負擔額
納稅總額千餘되는町에八、九百圓豫算
府에서嚴査決定方針

경성부구역확장의폐해 저낭편 며가지 개정편중의폐해를 나케 새로히 부로 편입된 일부에 합된 동리는것이 뭔가 새정민들의 불 동리의 소위정회(町會)는 부당평원인이라한다。 국의 통속으로 요지음와서 매부만아니라 소위 각평의회에 우곤란하여 이일반시거로 겨우명서 편성됏다는 정회비 예산은 식상조직을 불운앙이다 그러나 말할수업는정도로 엄청나서 일 그조직되엿다는 정회들은 요사반시민들의 생활정도에 몰리해 이 정민들에게 정회비 과중배한바가 만흔데 한례를 들자면 당(配當)으로써 적지안흔 원부 일년동안 납세총액이 천원밧게 (府)가되여잇서 일부에서는정 안되는동리에서 일년예산을 팔 회의 해산까지 대두하고잇다 구백원식 세우는등우서우면서도 한다 웃지못할 무리를만들기때문이라 한다

즉 정회비라는것은 소위 정평의회(評議會)에서 평의원들이 각자 생각키는대로 혹은 공과(公課)부담액에 혹은 그사람의 생활형식에다가 표준을 세워가지고 각각얼마얼마식 배정을시키는것이 보통이며 거기에는 여

그러나 정회에서 편성해노흔다는 예산안을절코 그대로실시 못되고반드시 감독자인 부내무과에 보고해서 결재를엇지안코면 실시할수업는것으로 부에서는과정회의 예산편성의 상신(上申)을 바뻐가지고는 축조적으로 검토를해서 정민의생활정도며 부행정시설의 여하와및 호수의다과등 여러가지실정을 참작한후무리한것은 여지업시 삭감시키리라한다

그리하여 가량 한정회의 정회비예산이 팔백원이라면 이상여러가지사정에 비추어 적부적을 골라가지고 만약 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 여지업시반감또는 그이상으로 삭감시켜버리리라한다

이것은 부당국에서 새로편입된정민들에게 아직이러타할만한 행정상시설을 베프러주지못하고 잇스니만치 일반새정민들의 가외불평을 사지안코저하는데 중점을 두기때문이라한다

開城府所得稅 萬餘圓이增加

【開城】근년에이르러 경기호전영향으로 상가시를포하는때문에 개성지주가 계급의소득이 엄청나게 늘엇는데 이것을 재작년과 금변도의계산을 소득총액(所得總額)으로 대조해보면 다음과갓다

▲九年度一六、八二六、九七〇圓 ▲十年度一七、三七七、三二〇圓

으로써 일와오십오마원의 증가를보엿는바 이에따러 개성부세무게에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額)한 보아도 전변도계산인 십사만이천원이 금변도엔 이십사만이천원에오십원 납세인원도 작변도엔 십오인이든것이 금변도엔 증세되여 근마원의 증가를보이고잇다 이 이십삼만구천원내지팔백이십육원 소득세액을 매변지를 하고 세는보유계급임에는 틀림업는바 개성오만인구에 대비하면 실로이대 일인식이 소득세 납부담자로 인구비로보아 전조선제일이라안할수업다

朝鮮語標準語査定 第三讀會를延期 八月一日까지續開

참된 조선말을 차저 가장적당한조선어 표준을 세우려는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제삼독회(第三讀會)는 지난삼십일 오전십시부터 인천부우각리(仁川府牛角里)제일보교강당(第一普校講堂)에서 개최하엿는데 회의를 진행식히기 위하야 다음과가튼 부서를 선정하엿스며 동일은 밤열시까지 계속심의하엿는데 출석위원이 삼십오명의 다수에달하엿다한다 그리고 그이튿날인 삼십일에도 오전구시반부터 삼십오명의 출석으로 도게속회의를 거듭하여 참된 조선말을찾고저 그표준을 세우려는 열의잇는 회의는 만장이긴장리에 진행되고잇는데 예정일인 삼십일일보다 하로를연기하여 팔월일일까지 계속진행하리라한다

任員

▲議長 李萬珪 ▲書記(交代進行) 崔鉉培 李裕應 ▲記錄係 鄭寅承 徐恒錫 金允經 文世榮 ▲提案說明委員 李允宰 韓澄

開城柔道大會

【開城】개성고려체육회(開城高麗體育會)주최로오는팔월일일 오후한시부터 상무관(尙武館)에서 제이회 전개성유도대회(全開城柔道大會)를개최한다는바 출전단체는 개성경찰서유도부와 고려청년회유도부 개성형무소유도부로써 심판원은 김수길(金秀吉) 윤대성(尹大成) 장도경길(長島敬吉)삼씨라한다

納涼野談의밤

경성부명치정(京城府明治町)에 본사를둔 계유사월간야담출판부(癸酉社月刊野談出版部)에서는 찌고 찌는 이한밤을 월간야담독자제씨에게 잠시한때라도 위안을주기위하야 오는팔월일일 하오팔시에 장곡천정공회당(長谷川町公會堂)에서 야담의밤을 개최한다는데 입장료금은(入場料金四十錢)이나입장하시는분에게 월간야담 팔월호일부식 무대진정한다는데 연사와 연제는아래와갓다고한다

一、是非是非 庾秋岡 氏
二、깨진딱죽사발 申鼎言 氏

更生途上에잇는 京信學院의隆運
辛永達氏가經營마든以後로
校運은旭日昇天格

시내 동양정(東洋町)에 잇는경신학원(京信學院)은 무산자의자녀들을 교육하는기관으로 손운창(孫云昌)씨등 유지제씨의 만흔노력으로 창립한지 오년동안에만흔 공적을나타내엿는데 금년사월에 유지하기가 어려웁게되여 하마트면 교문을 닷게되고 삼백여명의 어린생도들은거리에서 헤매게될번하엿는데 독지가 신영달(辛永達)씨가 그경영의 책임을 마타서 경영하게되엿고 여러가지 설비도 확충시키여서 교운이 날로 흥왕하고잇다 신씨는 멀지안흔 장래에 대옥혁신을 단행하야 면목을 일신할터이라한다

自働車檢查場新設

시내 아현정(阿峴町)직업학교(農業學校)안에 건설중이든 경기도자동차검사장은 요지음에락성되엿스므로 오는 일일정오에 락성식을 거행하리라한다

寫眞은 中等籠球에 優勝한 各軍…京城女高普(上)、崇仁商業(中)、平壤高普(下)

崇商、平高優勝
男女中等校籠球閉幕

朝鮮體育會支部主催의 第四回男女中等校籠球選手權大會各部決勝戰은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열렷는바 女子部에는 京城女高普軍이 崇義第一高女를 擊退하고優勝하엿고 實業部에는 中等籠球界의 覇者崇仁商業軍이 七十八對七로 普成商業軍을 이겨서優勝하얏다 그리고 高普部에는平壤高普軍이 光成高普를물리치고優勝하엿고 師範部에는 平壤師範의 棄權으로 京師가優勝하엿다

崇商78（32 46…7 2）9普成

實業部決勝…崇仁商業對普成商業戰은 三十一日午後二時十五分부터 審判、李文鎬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七十八對九로 崇仁商業軍優勝하엿다

【崇商】	得	反		【普成】	得	反
李禎國	14	0	F	林伯基	4	1
李明煥	5	2	F	金東元	2	1
朴榮大	22	0	F			
崔得俊	8	0	C	朴元根	1	1
邊勝睦	4	0	C			
石道順	13	1	G	李侑衛	0	3
安昌鎭	12	0	G	韓相俊	0	0
			G	朴允雄	0	1
計	78	3		計	7	7

元中19（6 13…13 4）17龍中

中學部決勝…龍中對元山中學戰은 同午後四時부터 李文鎬 李惠澤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十九對十七로 元山中學軍이優勝하엿다

【龍中】	得	反		【元中】	得	反
山本	2	1	F	金思寅	6	0
濱田	4	0	F	崔顯福	5	3
加藤	4	1	C	吳德相	4	3
木谷	4	0	G	下圓武	0	4
大貫	1	4	G	安昌祚	1	0
宮崎	2	0	G	高明勳	3	2
計	17	6		計	19	13

平高34（14 18…8 16）24光成

高普部決勝…平壤高普對光成高普戰은 三十一日午後五時十五分부터 岩崎實、林東洙兩氏審判아래 열렷는바 結局三十四對二十四로平壤高普軍優勝하엿다

【平高】	得	反		【光成】	得	反
李在潤	10	0	F	金泰均	4	0
李鍾均	8	2	F	盧元鎭	7	1
李好善	10	3	C	韓炳杰	2	0
李相笠	4	0	G	姜基廷	0	0
金永璽	2	1	G	尹永哲	2	0
朴仁成	0	0	G	邊君讓	9	2
計	34	6		計	24	4

京師籠球優勝 平師의棄權으로

◇…師範部決勝…京城師範對平壤師範戰은 平壤師範軍棄權으로 京城師範軍이 優勝하엿다

中等野球豫選
大邱商業軍健鬪 仁商甲子園에 八A對四邱商敗

大每主催의 第二十二回甲子園中等野球大會朝鮮第二次豫選最終日決勝! 中央代表仁川商業對南朝鮮代表大邱商業戰은 三十一日午後二時부터 京城球場에서 佐田(球)中村 平井 大島(壘)四氏審判下에 大邱商業軍先攻으로開始한바 大邱商業軍奮力함도허되이 結局八A對四로 仁川商業이 優勝하야甲子園에出場케되엿다

	1	2	3	4	5	6	7	8	9	
大邱	0	0	4	0	0	0	0	0	0	4
仁川	3	2	0	2	0	0	0	1	A	8A

◇投捕…(大邱商業)李 … (仁川商業)山口 長本 佐

【仁商】 [illegible]

仁商		邱商
34	打數	26
5	安打	2
2	犧打	0
0	三振	10
5	盜壘	2
1	失策	6
2	捕逸	1
8	殘壘	8
6	四死	14

【邱商】 [illegible]

各國"報道陣" 벌서부터戰端開始

【伯林二十九日特派員發】『올림픽』報道陣四十五個國記者團은 數日來로 動物園近處의 『미리아』 『라이프이터』의 砲列을펴고 戰備萬端을整備하고 여긔서 每日 『올림픽』 大會를 展開하야 各國『스포ー츠』記者는 『스포ー츠』에 堪能한婦人記者를 助手로두고全能力을내여서 活動하고잇다 劇場의中央에 備置한英語、佛蘭西語、葡萄牙語、西班牙語其他 各國語의 『라이프이터』가 機關銃가튼굉장한소리를내면서 特派員의蒐集한 報道材料를各國에 打電하고잇다 開會와共히 別動隊는 『스타디오』에移動하야 가차운電信局으로부터 直接本國에 放送하기로되여잇다

鐵道排球優勝

排協朝鮮支部主催의 第五回全朝鮮排球大會男子一般部의 鐵道對遞信決勝戰은 三十日午後五時十分부터京城運動場에서行한바 二對零으로 鐵道軍이優勝하엿다

鐵道2（21 21…11 17）0遞信

올림픽大會參加 四千八百餘名

【伯林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올림픽大會는 드듸어三日後로 迫頭하야 參加五十三國代表는 거이다 到着하야 開會를 기다릴뿐이다 大會當局은 二十八日 參加申込을 마감하엿는데 詳細한 數字는 全參加選手가 豫定數의 五千名에는 達하지못하나 四千八百四十四名이고 男女別로는 男子가 四千五百三人 女子가 三百四十一人이다 그리고 參加國別로보면 主催國獨逸이 筆頭로 男子 三百八十二名 女子四十五名 計 四百二十七名을 算하며 米國이男子三百二十三名 女子四十四名 計三百六十七名이 斷然遠征軍의 兩璧을占하고잇다 佛蘭西의二百三十八名 伊太利의 二百三十一名、瑞西二百三十名의 順으로 百名以上은 日本 유ー고스라비아、加奈陀 波蘭、瑞典 丁抹 芬蘭和蘭等이다

興味이끌籠球戰
崇商對徽文軍
全崇商軍對스파르타軍戰
今日!鍾路青年會館

中等籠球界의無敵艦隊 崇仁商業軍을마지하야 今一日午後四時부터 鍾路中央基督青年會館(雨天이면室內코ー트)에서 對抗戰을行하기로되엿다 이날第一戰은 徽文高普와崇商이對時케되엿는데 崇商의牙城을노려보는徽文軍은 休暇以後連日炎天下에 猛練習을거듭한이만큼 兩軍의 熱戰은 자못與味를이끌것으로 期待된다 第二次戰인 全崇商과 스파르타俱樂部戰은 스파르타軍의陣容을 보면 斯界의優秀選手로써 編成되엇스니만큼 이날入場者에게는 大勝敗를豫測키 어려웁다 十錢式을 밧기로되엿다

스파르타軍의陣容

▲監督金容泰 ▲코ー치安台鎬 ▲主將李文鎬 ▲選手 崔海龍 李容馥 申光浩 辛在甬 金容武 朴東漢 金鶴泰 南命鎬

各國選手伯林着

【伯林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라트비아올림픽팀은 白耳義의 近代五種競技選手、瑞西의陸上選手와함께 二十九日午前七時후리ー드리히停車場에 到着하엿다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國올림픽派遣本部隊는 二十九日伯林을向하엿는데 男女子選手役員總數二百十五名中八名만은 늣저도八月四日까지 伯林에 到着할豫定이다

【伯林二十九日特派員發】和蘭올림픽代表第二陣男子二十六名女子十名 役員四名 計三十六名의一行은 二十九日伯林에到着하엿다

仁川運動場開場式 八月二日로延期

【仁川】四萬圓의 工費로써 工事中이든 仁川運動場은 去二十六日 開場運動會를 開催코자하엿스나 雨天으로 延期하얏든바 來八月二日午前九時부터 擧行키로 決定되엿다한다

자바라"""去處不明"""

【伯林廿九日發同盟】亞爾然丁의

廿七個校代表 二百健兒動員
今日!中等陸上開幕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中等學校 陸上競技大會는 今一日(午後一時)과 明二日(午後二時)의 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京鄉各地에서 參加한 養正、培材、全州、光成、第一、春川、第二、晋州、公州、徽文、平壤等十一個의 高普校와 崇仁商業、京師、龍中、養正、春川農業、光中、大中、仁商、平農、羅中、京城商業、京工、義州農、京中、釜中等의 廿七個校 二百餘名選手가 參加한가운데 盛大히열릴터인데 中等校陸上競技의 常勝軍인 養正高普는 連二年優勝하엿는데 今般大會에는 이養正牙城을 肉迫하려는 新銳의 培材 徽文、一高、崇德、義農等의活躍이 잇서 一大接戰이 展開될것으로 豫想된다

獨逸代表올림픽村에

【伯林三十日發同盟】獨逸올림픽選手團은 三十日午前에 올림픽村으로드러가다

朝滿陸上對抗
候補選手를選拔

朝鮮、滿洲陸上對抗戰에 出戰할朝鮮代表 候補選手는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는데 今年度上半期의五傑中 第二位까지를 選拔한 것으로 最後決定은 來八月十二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 記錄會의結果 記錄會에는 다음의候補選手外 希望者는 多數出場하기를 바란다한다

【短距離】金裕澤(培材)中出(高商)李英敏(高商)滿田(高商) 金仁植(遞信)三好(鐵道)【中距離】朝倉(遞信)八十川(大學)崔俊根(鐵道)吳東裕(鐵道)【長距離】崔俊根(鐵道)吳東裕(鐵道)【障碍】山本(鐵道)安達(遞信)張洪根(高商)藤本(大學)【投擲】劉約翰(鐵道)金鍾俊(鐵道)松崎(遞信)德久(大

자바라選手는 어느곳에 잇나?

올림픽大會가 迫頭함을따라 옥림픽村에서는 南府大會의 마라손覇者자바라選手의 所聞이 暗하야잇다 왜그러냐하면 長折올림픽村에서 練習을 繼續하고 잇든 同選手의 姿態가 忽然사라저버린까닭이다

「자바라」選手는 昨冬부터 獨逸에와서 小都會「밋텐버르그」에 根據를 두고 練習하고잇는데「컨되순」의 外部消息을嚴重히 警戒하고 잇섯다 이小都會는 代代로 獨逸마라손名選手를 輩出한 由緖깁흔地方이다 南府大會의 마라손覇者도 이와가티 由緖깁흔곳을探索하야 「밋텐버르그」를 自己의 唯一한 練習場으로 選擇한後 마라손再制覇를 目標로 再次 이地方으로 歸還하엿는데 그行方은 도모지 알길이 업서 各國 마라손選手들에게 크다란疑問을 남기고잇다

京畿、學生陸上
防長陸上과對抗할 京畿、學生陣容

山陽陸上競技界雄 防長陸上競技俱樂部選手一行 三十名은 來八月五日에 來征하야 全京畿道軍과는 七日에 全朝鮮學生軍과는 九日 兩日間에 各히京城運動場에서 對戰할터인데 各軍의멤버는다음과갓다

◇…全京城實業團

監督 齊川 宮川 主將 山本 副將 萩野 ▲百米 山本 韓喆鎬 山根 岩原 鹿內 福田 ▲四百米 金仁植 三好 大迫 金周龍 山根 安達 ▲千五百米 崔俊根 吳東裕 朝倉 閔泳里 ▲五千米 崔俊根 吳東裕 朝倉 閔泳里 ▲四百米 高障碍 山本 安達 鹿內 ▲百米繼走 山本 韓喆鎬 山根 岩原 鹿內 福田 ▲千六百米繼走 金仁植 三好 大迫 山 金周龍 山根 安達 ▲投擲 劉約翰 金鍾俊 萩野 松崎 坂口 ▲投槍 喜田 松崎 大內 鹿內 ▲走幅跳 鹿內 大內 山本 內 投槍 喜田 松崎 大內 鹿內 ▲走高跳 久原 福田 ▲走高跳 久原 山本 鹿內 安達 松崎 ▲三段跳 萩野 山本 久原 鹿內 松崎

◇…朝鮮學生聯合會 監督 池田 ▲主將 島崎 ▲百米 金鍾元 戶嶋典一 朴永俊 ▲四百米 金鍾元 張洪植 芦刈 ▲千五百米 八十川 宋觀燮 杉原 ▲五千米 八十川 王寅振 李河潤 ▲高障碍 島崎 越田 韓喜錫 ▲走幅跳 越田 朴永俊 里原 ▲三段跳 越田 松口 朴永俊 ▲走高跳 島崎 越田 盧聖仁 ▲投砲丸 鈴木 安榮植 金鍾元 ▲槍投 德久 鈴木 桐木 ▲八百米繼走 金鍾元 戶島 朴永俊 桐木

巨人9A 京城0

東京職業團巨人軍對 全京城殘留軍의野球戰은 三十一日午後五時二十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石井、百瀨(壘)三氏審判아래 全京城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九A對零으로 巨人軍大勝 閉戰六時五十分

京城	0	0	0	0	0	0	0	0	0	0
巨人	0	1	4	0	3	1	0	0	A	9A

◇投捕…(巨人軍)스타르힌—中山 (京城)橋本、東、松元、會田—中川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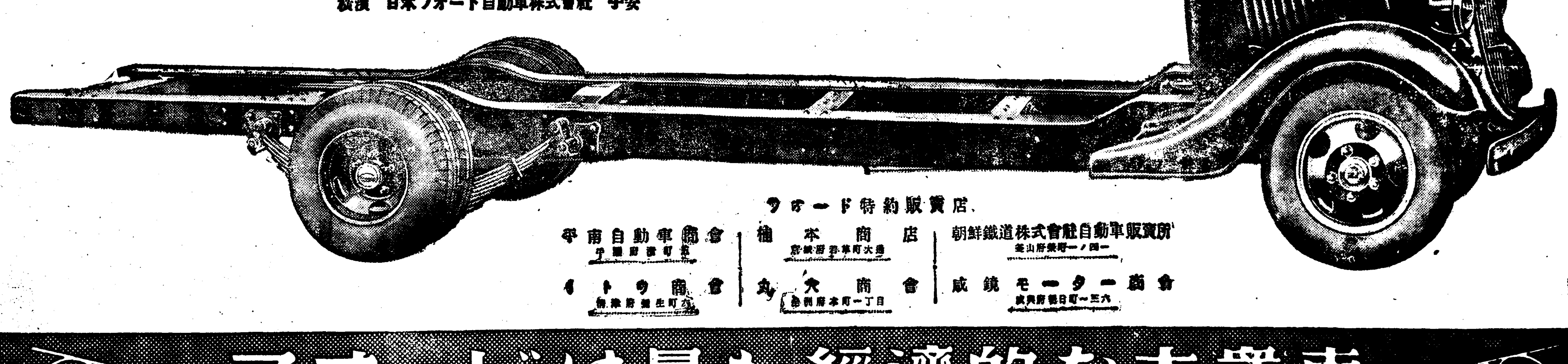
▲籠球…崇商對徽文(午後四時)全崇商對스파르타(午後五時)鍾路青年會館庭에서
▲陸上…中等校對抗選手權大會第一日은 午後一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
▲水上…中等水上競技第一日은午後三時부터 京城府營에서

フオードV-8バス シヤシー3種
131½吋 157吋 及び 185吋

모도가610粍低床式빼쓰샤ー시로서鐵道省의認可를바덧스므로널리營業者各位의使用을바라는바입니다

後部스프링은리ー야악슬의上方에부친型과下方에부친型과의二種이잇습니다。下方에부친型은重心이얏고탈맛이一層輕快하므로一般에게推奬하는바입니다。二種中에撰擇自由

橫濱 日本フオード自動車株式會社 子安



フオード特約販賣店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町
櫓本商店 京城府吾?町大島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町一ノ四一
イトウ商會 ??府??町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咸鏡モーター商會 咸興府??町一～三六

フオードは最も經濟的な大衆車

産業

漁業取締規則 廣汎히 改正發令

産卵魚重取締、魚族繁殖保護

八月一日부터實施

朝鮮의水産業의 繁殖保護를行하에 對하야서는 朝鮮漁業取締規則에 依하야 一部規定되엇스나 同規則制定當時의 調査不備와 當時의漁村狀態로 取締規定이너무 寬大함으로 幼稚魚의捕獲、産卵期의産卵等이行하야 이대로放任하면 朝鮮의水産業의 將來는憂慮되는것임으로 殖産局水産課에서는 昭和九年以降愼重히 繁殖保護에關한 調査를한結果 三十日付로서 府令第六十三號로써 朝鮮漁業取締規則의 改正을發하고 八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엇는데 特定期間의採捕禁止 幼魚의採捕禁止 雌及卵의採捕禁止等制期的의것等 廣汎한것이라한다

明年硫安消費 四十萬噸?

消費增加傾向注目

今肥料年度(昨年八月부터 今年七月末까지)의 朝鮮內硫安需要는 米價高에依한 農家購買力의 激增에依하야 朝鮮二十六萬噸 그他九萬噸 그中持越二萬噸 計三十萬噸으로 空前의 巨額에 達하얏는데 今年八月부터 明年七月까지의 硫安消費豫想에依하야 農林局에서 推算한바에 依하면 新肥料年度에는 더욱 激增하야 三十八萬乃至四十萬噸을 豫想하고잇다 昭和九年에 一躍二十萬噸에 達하야 硫安消費激增이驚異的이라 하든것이兩三年을 出하야 倍增이 豫想되는터로 硫安消費增大傾向은 注目되고잇다 右에 對하야 農林局尾崎技師는

今年의 硫安消費는 期初市勢의大波瀾으로硝石、로이나호스 取灰窒素、魚肥等의 窒素肥料를 代用한量도 相當히 잇는關係上 大體實約三十五萬噸에 達하얏는데 持越二萬噸가량으로 大體三十三萬噸가량의 實需이엇다 그런데 朝鮮의 肥料需要는 階段的으로二三年마다 增加하는 傾向이잇서 明肥料年度는 增加停滯의 해임으로 硫安消費는 三十八萬噸乃至四十萬噸에 곳칠것이다 單肥로서는 三十四萬噸가량으로보인다

大邱合銀株主總會

【大邱】慶尙合同銀行 第十六回定期株主總會는 二十九日 午前十一時부터 開催한바 株主五十七名이 出席하엿는데 總株數는 四萬八百九十四株이라한다

▲當期純益金 七萬一千五百七十圓六十八錢也
▲前期繰越金 二萬九百三十九圓三十六錢也
▲當期利益合計金 九萬二千五百十圓四錢也
▲株主配當金 二萬六千六百二十五圓也
▲本株一株에金一圓 △第一新株一株에金七十五錢 △第二新株一株에三十五錢

◇大邱合銀의異動◇

【大邱】慶尙合同銀行에서는 慶州支店支配人權肅璘氏의 死亡으로 因하야 左와如히 異動이잇섯다

慶州支店支配人 金[illegible]
慶州支店支配人代理 [illegible]
浦項支店支配人代理 金基鎬
浦項支店支配人兼[illegible] [illegible]
浦項支店行員 金錫圭
浦項支店支配人代理兼[illegible] [illegible]

洋灰統制問題

겨우安協成立

【東京電話同盟】外地세멘트統制問題에 關聯하야 過般來 紛爭의 當事者인 笠井小野田社長과 金子聯合會理事長이 [illegible] 折衝을行한結果 겨우 安協이 成立케되엇슴으로 笠井、金子兩氏는 三十一日午前 商工省에 後藤合理局第二部長을 訪問하야 報告諒解를 求하얏다 그런데 右統制案의 內容에對하야서는 來三日聯合會와 小野田의 雙方으로부터 發表될터이라한다

朝鮮內製鐵所

日本內地側異論

正面衝突難免形勢

[illegible]은 [illegible]의 現地로 商工省中心의 [illegible]會에서 重要[illegible]으로되어 軍 商工 資源 大藏 日銀 三菱等에서 [illegible] 最中인데 右에對하야 朝鮮總督府에서는 [illegible]一貫하야 朝鮮內[illegible]의 [illegible]固한主張을하고 日本內地側과의 正面衝突을 免키難한形勢라한다

海南組合評議員會

【[illegible]】去七月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 工事의 竣工을 맛친 新海南組合會議室에서 昭和十一年第一回海南組合評議員會를 開會하얏는데 會順을 따라서 順調롭게 進行되어 海南組合落成式을 八月一日、擧行키로 定하고 事務도 八月一日부터 取扱할터이라는바 會順은 다음과갓다한다

一、昭和十年度決算에關한件
一、豫算[illegible]에關한件
一、事務開始에關한件
一、其他事業에關한件

慶北麯子會社

合同案進行

一稅務署管內一社主義

【大邱】慶北에는 麯子會社合同問題가 擡頭되야 麯子業者들이 大騷亂을 이르키고잇다는바 大邱稅務監督局에서는 群小麯子會社를 合同統制하야 一稅務署에 一社方針으로 着着實行中이라하며 管內十九個稅務署中에서 交鮮、金泉、乃城、義城、河東、金海等의 六個所는 一社主義가確定되어 其他未合同地帶에 잇서서도 實現하고저 協議中이라한다 그런데 이에대하야 一部業者側에서는 相當히 反對하고잇는터인데 一般은 그推移를 注目하고잇다 한다

田作奬勵補助費

不遠間交付指令

總督府에서도 田作增產 十二個年計劃에 依하야 昭和十一年度의 田作奬勵補助費로 三十萬四千四百五十九圓을 近近 各道에 交付指令을 發하리라는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原種圃補助 一千三百萬圓
一、指導圃補助 二萬五百五十四圓
一、專任職員設置補助 十八萬二千六百圓

慶南米穀調査

協議會를開催

【釜山】慶南에서는 米穀自治管理의 完璧을 期하기爲하야 오는가을에 實施할 米穀生產高調査 現在高調査에 對한 協議會를 八月五、六兩日間에 道會議室에서 開催한다는바 本會議에 參加者는 各府郡에잇는 普通農事係主任技手等이라하며 協議重要項目은 各府郡에 米穀生產高調査及 現在高調査指導員을 一名식 設置하고 또邑面職員及同邑面內에잇는 水利組合 學校 農會 區長 農振幹部等 二千三百餘名에게 屬託할것과 다음과가튼것이라한다

▲米穀生產高調査
一、調査期日及道에報告期限
一、調査事項及調査方法
一、調査機關
一、集計와報告

▲米穀現在高調査
一、調査期日及道에報告期限
一、調査事項及方法
一、調査機關
一、集計와報告

窯業原料의

統制論擡頭

殖產局에서도考究

朝鮮의 窯業原料開發은 日本內地의 原料不足으로 드듸어 重要性을 帶하야 日本內地資本側의 朝鮮內視察이 接踵되고잇는데 朝鮮의 斯業開發上에는 先決問題로 統制强化가 急務라하고잇다 即

朝鮮內原料採掘의 現狀을보면 各鑛山間에서 無統制하기때문에 販路競爭으로 濫賣에陷하야 市價를崩落시키고 또 原料爾土에는 含有成分의 保證이업기때문에 惡質의것도 多數搬出되는 傾向에잇서서 朝鮮內斯業發展上 障害가되어잇다 그럼으로 統制를 强化하야 合理的開發을 圖할 必要가잇다하야 殖產局에서도 具體的으로 考究中이라한다

日本의電力問題

(上)

國營論의基調는?

最近 電力國營案으로 當局과 電氣業者間에 意見을 달리하야 그推移가 注目되고잇는바 다음에 內閣調査官 奧村喜和男氏의 글을 들어 當局者의 意見을 엿보기로 하자。

最近 電力統制라든가 電力國營問題가 世人의 注視를 끌게되고 쩌―나리즘에잇서서도 亦是 이에對하야 여러가지 論戰이 展開되고잇다 元來 電力問題는 日本의 產業經濟上 極히 重要한問題인데 最近 이問題가 特히 論議되게되엿다 그것은 國內各方面에잇서서 窮狀을 무릅쓰고 또는 國際關係上 危機에 明治維新을따라 日本이 여러 難關을 突破하기爲하야 庶政一新의 斷行을 必要로하게되어 事態의뒤를이어나온 現內閣의 使命으로 國民生活의安定、產業의發達、國防의充實等

三項目을 圓滿히 遂行할 必要가생기엇다 此等 諸問題의 解決은 正히 政治終局의 目的이될것으로 歷代의 政府가 이三大眼目의 具現實行에 邁進하여왓다 그러나 在來의 政治에對하야는 農村問題거나 乃至는 國防에잇서도 單只此其他產業政策、中小商工業政策等을 各者個別로 檢討하는데 不過하얏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綜合하야 拔本塞源的方策을 確立하는것이 時代의要求하는바이다

그러고 此等諸問題를 根本的으로 따내려가면 電力問題를 無視할수가업게되엿다 이電力問題는 從來도 電氣產業의 問題로 이미 大正 昭和의初에잇서서 檢討하얏스나 그者限點은 經營의 窮況을 打開하야 事業者의 利益을 增加하는것 即換言하면 經營의合理化에 由來하얏든것이다 그런데 今番世上에나타난電力問題는 從來와가티 事業者本位의立場에 立脚하는것도아니오 또 事業의窮況打開를 目的하는 合理化도아니다 이것은 日本國勢의 興隆을爲한國民生活의安定、產業의發達、國防의充實을爲하야 電氣問題를 處理하려고하는것으로 여긔에 電力問題의

基本的 性質을發見하얏기때문이다 即今의 電力問題는事業의 內部的發展에 依한것이아니고 그外部的原因으로부터 問題되엇스로 여긔에 飛躍的인 方法論的止揚이 伏在한것이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電力問題가 根本的이되는가 日電力이 全產業의 基礎가되는同時에 國民生活에잇서서 不可缺의것이며 國民全般의 福祉를 增進하는同時에 他面 一朝有事之時에는 軍需工業의 原動力이되며 또 化學工業의 材料資源으로 極히 重要한 役割을하기때문이다 即 現在電氣는 國家生活、社會生活의全局面에亘하야 基礎的作用을하는것으로 그事業經營의 適否는 國家興隆의 열쇠라고할것이다

一般的 으로는 電氣가 이러케 重大한使命을 가지는것을 아주 充分히 認識치못하고 겨우 電燈問題程度以上으로는 認識되지못하고잇다。 以下 그重要性에對하야 略하야보기로한다

○

大體 電氣가 이宇宙에 存在하는것이 비로소알게되것은 이제로부터 約三千年前 希臘에서이다 現在의 엘렉트리시티―라는말은希臘語의 엘렉트론이라는말에 根源되어잇다。 이엘렉트론이라는것은 元來 希臘人의 一種 裝飾品으로 그것이 獸毛에 接觸되면 異常한現象을 生하는것을 알자이를 엘렉트론이라고 하얏든바當時는單히 奧奇的現象이라고하는程度에 끄치고 全然實用에는供하지못하엿다 電氣가 人類生活上에 利用되게되것은比較的近世의일로 이제부터 約百年前 一八三七年에 電氣利用의 通信即 電信이 發明된데 始作되엇다 다음에 나타난것이 電話이며 從來通信機關으로는 全然人이나 馬에依하든것이 電氣를 利用함으로써 어떠한 遠隔地에 對하야서도 瞬間에 通信이 되도록되엇든 劃期的發明이엇다 그러고 이것보다는다시 直接人類生活에 利用된것은

電燈이 다電燈은 헨리·로일드의 發明한 아―크燈에 源되는것으로 共後改良이되어 一八八〇年에이르러 드듸어自熱電燈이 發明되엇다 이에竹細絲의 炭素線을 應用한것은 有名한 에디손이엇다 이리하야 照明은 燈油、松火에서 瓦斯石油를지나 電燈의 今日이되엇고도 「夜의征服」을 完成하얏다

○

그런데 日本電氣事業은 明治二十年 東京電燈會社의 손으로日本橋附近의 商家에 點燈이開始되것으로써 濫觴이라하겟는데이것은 倫敦에 點燈開始된지 僅六年만이엇다 爾來顯著히 普及發達되야現在는 全國에四千五十三萬燈의 多數에達하야全國一萬一千五百餘町村中電燈이업는村은僅二百九十個村에不適하야 餘百島에까지 普及되엇다 이것을 世帶數에對하야보면 世帶數百二十萬中百十萬까지는電燈을 利用하야그比例는 九十八%가량이고 또人口百人當五十三燈의比例이다이普及程度는 世界에잇서西瑞와伯仲의 狀態이고 英米兩大國을凌駕하야히世界第一位를占한다하야도 事實過言이아니다

即 此等事實에鑑하면電氣는 國民의 文化生活上 不可缺의必需品이라할것으로 最近科學의 進步에依하야 照明技術向上의結果 高燭光電燈의發明에依하야 事務室、工場等만아니라 農業에잇서害虫驅除의誘蛾燈業當時의 育成用、나가서는植物栽培에까지도 利用되려고하고잇다

그런데 電力問題의 重要性은 오히려 動力問題의 分野에잇는것으로 機械文明의 發達과 不可分의 에네루기―를電力에依하야 供給하는데잇다 即 蒸氣機關의 發明에 依하야 產業界에는 革命이 야 電力으로는 動力으로는 되엇스나 重

電力은 이동力에 對한 幾多의 長所를 가지고잇다 即操作이 簡單한것、回轉數가正確한것、運搬을 넓게取하지안는것、動力機關에잇서 細分化할수잇는것等의 長所를 가지고잇다 그런으로 日本에잇서서는 今日 動力의 九〇%는 實로 電力에依存되어잇고 現國도 水力가를 뭡에잇다。 實로 어떤 事業가말하고가다에 二次產業革命이 電業動力의利用에依하야 實來되려하고잇는 바現代의 產業이 動力에支配되는限 產業의發展은 電力에 問題에 그基調를 두지안흘수업 라

또電力問題는 中小工業者에잇서 極히 重要한 問題이다、即 技術年間에 日本中小工業은 크게 發展을 하엿는데 그 原因으로는 電力利用에 依하야 汽力利用에 잇서서의 莫大한 設備 及 그힘드는 操作을 省略할수잇는 所謂 動力革命이라고 할수잇다는것을 無視할수 업는것으로 中小工業의 發展에는 電力問題가 基本이 되는 것이라하야도 過言이 아니다

第三에 農村工業問題이다 現在農村의 窮乏은 結局農村經濟와 財物經濟와의 矛盾에 起因하는것으로 이것은 要컨대 農村의 餘剩勞力을 이르켜 農村工業을 勸誘하기 爲하야는 電力을 利用하야 家內工業을 振興하는 外에는 업슬것으로 여긔에도 또 電力이 重要하게 되어잇다

動力으로서의 電氣가 이러케 大한 役割을 하는것을 알수잇다

元山에서도 木炭을檢查

八月一日부터實施

【元山】咸南道에서는 過般부터 木炭檢查規則에 依하야 咸興府 元山府 興南邑 北靑邑 四個所를 木炭檢查指定地區로 定하얏는데 이에따아 元山府에서는八月一日부터 京町府營市場과 村洞市場에서 每月奇數日에 炭檢査를 實施하기로하얏다 이로말미암아 生產品의 質的向上과販賣의統制가實現되는 셈이라고한다。

南海灣漁組區域指定

【南海】知足里에所在하는 知足[illegible]

海南黃山漁組好績

黃山漁業組合은 昭和五年에設立되야 以來好成績을 擧하고잇는바 그외所產乾海苔는 郡內에서도 屈指하는 良品으로서 六年間의 統計는 如左하다

昭和五年度	乾海苔	五三、九〇〇束
同	鮮魚	三八、三五九、一八錢
昭和六年度	乾海苔	一八、〇〇九束
同	鮮魚	一〇、九〇八、四八錢
昭和七年度	乾海苔	二五、〇五〇束
同	鮮魚	一四、六八五、八二錢
昭和八年度	乾海苔	一、七六五、八六
同	乾海苔	一七、七〇一束
同	鮮魚	一三、一七一、〇九錢
昭和九年度	乾海苔	三九、六〇〇束
同	鮮魚	四九二一、二五錢
昭和十年度	乾海苔	五二、八四四束
同	鮮魚	二八、七七五、七〇錢

漁業組合은 [illegible] 從來의 三個里의 一部만 漁業區로하든것을 六個里를[illegible]入個里漁業區로 南海灣漁業組合이라改稱하얏는데 [illegible] 漁業의[illegible]이 不遠이 될것이라면 또 [illegible]의 指定을 [illegible] 同組合은 [illegible] 定을맛게되어 完全한 四股를가지고 나서게되엇다한다

◇賽◇業◇短◇信

▲寒鍊 [illegible]에서 去[illegible] 六月二十一日부터 [illegible] 다음과가다고하다

特等	一〇二貫〇一〇匁
一等	三、九五五貫九五〇匁
二等	一、九〇二貫〇一〇匁
三等	七五〇貫三四〇匁
共然	一、大四〇貫六九〇匁
總價	三三五四〇九圓一七錢

▲合大 平南順川郡合大金融組合에서는 오는八月四日午前十一時부터 今年度第一回 評議員會를 開催한다고한다

日用商品市況

京城 (七月二十八日)

◇菜蔬類 ◇果實類 ◇家畜飼料 ◇毛皮類 ◇養鷄用鐵網 ◇川魚類 ◇家畜類 ◇其他副業品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查】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鑛業權者住所氏名

[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四六三	江原洪川郡北方面	七月十一日	三池榮任意脫退함
同	同	同	動田翔二任意脫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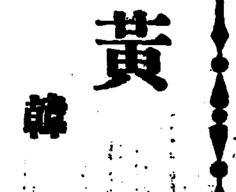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八五一三三	咸南新興郡下元川面	李禎弼	新興郡下元川面林炳深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六月二十七日屆出
一九六七 五四六四 三〇二五 五三五三	忠南扶餘郡場岩面 同場岩洞林川面 同場岩面林川面忠化面	不二鑛山株式會社	京城府初音町村上鐵次郎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六月二十七日屆出
八五九六 九二一三	同林山面忠化面 平北熙川郡西面	朴春燮	熙川郡西面朴瑞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六月二十九日屆出
八九〇四	江原淮陽郡下北面	三菱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門田正郎을解任하고京城府南大門通大坪健雄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六月三十日屆出

黃昏 (146)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재회(再會)(五)

『아니 별로 자주 가보지못한 니다? 가끔일이라구 잇서야지 요』

하다가 경재는 얼마전에 려순의 소식이나 혹시 알수잇슬 가 하는생각으로 회사에 나가 본일이 생각나서、

『려순씨가 그만두신후에는 자 주 나가보앗습니다만』

하고 고처 말하엿다。

『제일에 대해서 아무말 업섯 서요?』

『아니 별말은 업섯습니다만、 사장도 소식을 몰라서 퍽 궁 금해 하드군요』

『아마도 시골가 잇는줄로만알 고잇슬걸요?』

『글세올시다…… 그러케 떠지 햇섯습니까?』

『아니요。』

『편지나 해드렷듸 그랫습니다 ?……여러가지로 퍽 미안히 생 각하는모양이고、또 회사일도 못 드려서 한번 차자오셧스면 하 고 기다리드군요?……참말 언 젠가 려순씨 시골주소를 뭇는 데、어듸 알수가잇서야지요』

『하지만、인제 혹시 만나게되 면 아주 분즈만듯 할걸요……』

『웨요、오래간만이니만치 더반 가워할테지요、인정상 그럴거아 닙니까?』

『아니、그러치도 안흘걸요。그 런사람이란 제일을 도아주는동 안은、잘하건 못하건、제편사람 이어니 하는 리익을 주는 사 람이어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잇스니까、좀 무엇한일이 잇더 라도 정책상、친절히 구는것이 지만、일단 제일을 안보는날이 면 더 쌀쌀해지는법이니까요』

『네、물론 그것이 그사회의 통 례입니다만、가령 그러타기로서 니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처 고 려순씨는려순씨인데、크까짓게 전부이 그런다기로 상관하나 다 칠거업는일이지요』

『그러니까 애당초、만날필요가 업겟지요。그러치안습니까?』

『웨요?……만나 보실일이 잇습 니까?』

『아니、글세말이에요、혹시 어 듸서 만나게될지도 모른다는것이 니까요、사람의일을 누가 압니 서요?』

하고 려순이가 웃는데에 무 순의미가 잇는것가타 경재는 생 각되엇다。영감의 가장으로 회사 를 그만두고보니 역시 그만한 곳으로 어떠한불수업고 도 생활 도 궁색해지고해서 다시 회사 로 들어가자는거나 아닌가?하 고 생각하엿다。

그리며 그는 려순이가 지금 거처하고잇는곳조차 『그방안』

맷습저 살짝웃엇다。누런누렁기 운 장판、벽여케 거스름 되벽、 풀께어서 못에걸린 옷몇 멧가 지、책상에노인 표지떠러진 책 몃권――이러한것들이 모다 려순 이가 다시 직업을 구하고잇다 는것을 웅변으로 말하고잇는것 가텃다。그리고 또 한편、얼마 아니되는 회직로나마 퍽 필요 히 생각하는것가티도 생각되엿 다。그래서

『만나보시라거든 만나보서도 무 방합니다。사장은 려순씨에게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퍽 가리、호감을 가지고 잇는 모 양입드다。아직까지도 려순씨는 회사를 크만둔것이 아니어니하 고 잇는것 갓드군요。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자만 가시면 어 서오십시요 하고 모셔드릴겁니 다。』

『아니에요……일단 그만 두엇 다시 비릇기는 실흡니다만 후 시 다른분이라도……』

『혹은 부탁입니까……그도 정도 와는문제겟지만 자기가 할수 잇는 범위에서는 어듸까지든지 힘써드릴것 밋습니다』

『아니 꼭 무슨 부탁이잇다는 게아니라요 이를테면 그럿단말 이지요』

하고 려순은 자기의속생각을 한편에 감추어두고어물어물한표 정을 보이다가、

『그건 그러라고하고 선생님가 드면 엇절테에요?』

하고 방긋 웃는다。

『무엇을 말이에요?』

경재는 려순의 물음을잘라해 할수업서서 어리둥절하다 이러 케 반문하엿다。

『가령 말입니다。저가 무슨딱 한부탁을 한다면 그때는 엇지 하실텝가 말슴이에요?』

『글세올시다。그거 매우 어려 운질문인데요。하하하………대 체 남의부탁을 들을만한처디에 엇든사람 이여야지요』

『글세 그러치마시고、얼른제가 나시는대로 말슴해보서요。안해 주시라거면 안해주신다고하고!』

『………』

『좌우간 무슨일이실테까? 말슴 을 해야 알지요』

『아니에요、해주실지 안해주실 지 그것부터 말슴하서야 분분 을 얘기하겟습니다』

『그거참、딱한 조건인데요만、 좌우간 말슴해보시지요』

『아니에요、좌우간이아니라 꼭 입니다、네』

하고 려순은 웃음을 들고 다 짐을받듯이하고는 어 면 조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려순씨 저는 [illegible]을 해드 하고 [illegible]을 [illegible]져 내보입니다。』